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징

④ 보더 콜리(Border Collie)



글 | 박수영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의 목양견 중에서도 가장 작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보더 콜리. 가까운 라프 콜리만큼의 우아한 스타일과 뛰어난 용모를 가지지 않았기에 순수종으로 인정되는 것이 늦었고 최근까지 공인이 미루어지다가 1987년 세계축견연맹(FCI: Fede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의 공인을 받았다.

그러나 보더 콜리의 사육자들은 이들의 뛰어난 지능과 활동성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외형을 중시하지는 않는다.

보더 콜리의 조상견은 8세기 후반부터 11세기까지 걸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바이킹이 영국에 반입한 순록몰이용의 목축견이었다고 하며 그 후, 토착 목양견이나 라프 콜리의 조상견과 교잡하여 19세기경에는 거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라프 콜리는 쇼 독(Show Dog)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보더 콜리는 작업 능력만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목장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어 도시 생활자와 국외에 알려지는 기회가 적었다. 그



러나 전람회에서 워킹 트라이얼, 오비디언스 트라이얼이 실시되면서 보더 콜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공인 견종이 될 수 있었다. 보더(border)라고 하는 것은 국경, 경계(선)이라는 의미이나 영국에서 보면 스코틀랜드는 변경이었고, 변경의 목양견이라는 의미가 있다.

1. 성격

기민하고 개의 품종 중에 가장 지능이 높다. 끈기가 있으며, 몸을 아끼지 않고 작업에 종사하는 순종성을 가지고 있다.

보더 콜리는 잡일이 주어지거나 이들의 힘을 분출시킬 때에 가장 행복을 느낀다. 이들은 양몰이를 할 기회가 없으면 이웃의 다른 동물들을 몰 것이다. 이들을 오래 키운 사육가들은 “그림자를 늘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목장이 아닌 곳에서 보더 콜리들은 활동성에 대한 욕구를 프리스비같은 스포츠에 해소하는 듯 하다.

국제적인 견종 관련 협회마다 약간의 수치상에



차이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보더 콜리가 가장 지능이 높은 견종이라는 것이며 그래서인지 보더 콜리는 다른 개들이 있으면 질투를 자주 한다.

2. 외형

크기는 수컷이 46~53cm(14~20kg) 정도이고 암컷은 43~51cm(12~19kg)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체구 구성을 하고 있고 풍부한 피모를 가졌으며, 비율이 잘 잡힌 몸을 가지고 있으며, 날씬하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털은 길고 풍부하며, 웨이브에 약간의 컬을 하고 있고 만지면 부드러운 감촉이다. 상모는 길고 두툼하고 하모도 부드럽고 두툼하여 어떤 기후의 변화에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

두개부는 조금 넓으면서 약간 둥글고, 귀는 높게 위치하고 중간 정도의 크기로 직립 귀와 반직립 귀가 있다. 이빨과 턱이 강하고 교합은 협상교합이다.

몸의 구조를 보면 가슴은 깊고 넓다. 가슴은 발의 중간 관절까지 내려와 있고 앞가슴은 등글지 않다. 등의 선은 곧고 복부는 타이트하나 턱 업(몸의 윤곽이 허리 부분에서 대단히 가늘어지며, 복부가 바짝 올라간 듯한 상태)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며 허리는 근육이 있고 완만하게 굽어있다.

꼬리의 길이는 거의 비절에 이르는 정도이며 정지 시에는 쳐져 있고 엉덩이의 위쪽에 위치한다.

앞에서 보았을 때 앞발은 평행이며, 옆에서 보면 발잔등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사지의 뼈는 굵으나 중후한 느낌을 주지는 않고 뒷발은 대퇴부가 잘 발달하였으며, 적당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동력, 추진력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행시 자연스럽게 부드럽우며 경쾌한 진행을 볼 수 있다.

3. 사양 및 건강관리

정열적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보더 콜리는 반드시 일이나 훈련을 해야 하는 개다. 아파트나 좁은 공간에 가둬만 놓고 길러서는 안되며 넘치는 활동력을 적절히 일이나 놀이로 해소시켜 줄 만한 양육 경험자가 필요하다. 이 품종의 넘치는 정열은 아이들이나 노인에게는 벽찰 것이며 또한 함께 운동으로 여가를 즐기거나,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좋다. 천부적인 재능과 명석한 두뇌는 주위의 조언만으로도 쉽게 훈련이 가능하게 한다.

질병 중에는 고관절이형성 또는 망막위축증 등의 안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㉟

(다음호에 계속)